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9

JCCT 2018-5-2

이순신의 수군재건과 특별조세 징수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navy rebuilding and Special Tax Collection of Yi Soon-shin

최학삼*

Hack Sam Choi*

요약 본 연구는 정유재란기 이순신이 수행했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백성의 안전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통제영에서 징수한 해로통행첩이라는 특별조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순신을 도와 수군을 재건하고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류형, 이의온, 최희량, 정사준 형제의 활약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이순신은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구국의 성웅으로 영원히 추앙받을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 외에 이순신이 수군이라는 군대조직의 최고지휘관을 뛰어 넘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경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이순신, 수군재건, 해로통행첩, 특별조세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e to the Special Tax of the Seaway Traffic Certificate collected by Tongjeyoung for secure of Gunyangmi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military recruitment for the navy rebuilding carried out by Yi Soon-sin of Jeongyujaeran period. In addition, I examined Yu-Hyeng, Lee Eui-On, Choi Hee-Ryang, and Jung Sa-Joon's brothers who played a major role in helping Yi Soon-sin and rebuilding the navy. Yi Soon-sin is the person to be sown forever as the Holy Hero of the save country that saved Chosun from the aggression of the Japen enemy. In addition to these conten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focusing on the part where Yi Soon-shin went beyond the top commander of the navy army organization and exerted his ability as the administrator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Key words : Yi Soon-shin, Navy rebuilding, Seaway Traffic Certificate, Special Tax.

1. 서론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에 대하여 그 주요 과정을 대략적으로 언급해 보자면 전쟁 초기 조선 육군의 연전연패, 임금의 몽진, 광해군의 분조 활동,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의 반전의 승리, 명나라와 왜군의 강화협상, 이순신 장군의 파직과 백의중군, 정유재란의 발발과 칠천량 해전의 패배,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통제사 재등용, 명량해전, 고하도 및 고금도에

서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군량미확보,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의 전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임진왜란 당시의 주요 과정 중에 정유재란기 이순신이 수행했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백성의 안전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통제영에서 징수한 해로통행첩이라는 특별조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순신을 도와 수군을 재건하고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류형, 이의온, 최희량, 정사준형제 등의 활약에 대해

*정희환, 김해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접수일: 2018년 2월 16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5일

Received: February 16, 2018 / Revised: March 23, 2018

Accepted: April 5, 2018

*Corresponding Author: hschoi@gimhae.ac.kr
Dep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Gimhae University,
Korea

여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수군의 재모집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하자 선조와 조정은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재등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등용된 이순신에게 인계된 것은 칠천량해전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수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칠천량해전에서 살아남은 군사 및 참모들과 재회하고, 배설이 숨겨 두었던 12척의 전선과 추가로 건조했거나 아니면 수리를 마친 1척의 전선, 피난생활을 하던 백성과 어선들을 가지고 칠천량해전 2달 후에 명량해전에 임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이순신의 수군이 다시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우리가 알고 있듯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수군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순신과 수군은 1597년(선조 30년) 9월 16일 명량해전의 승리 후에도 정착할 곳이 없어 당사도, 어외도, 칠산도, 법성포, 홍농, 위도, 고차도, 고군산도 등 무려 42일 동안이나 서해의 섬이나 포구를 떠돌다가 1597년(선조 30년) 10월 29일 목포 보화도(고하도)로 통제영을 옮겼다[1]. 정착은 했으나 수군 재건에 필수적인 군사와 군량이 없었다. 먼저 수군 군사의 모집은 어떻게 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해 준 인물은 당시 해남 현감 류형이었다.

류형(柳珩)은 피난민을 군사로 활용하자는 건의를 했다. 적을 피해서 여러 섬으로 피난해 있는 백성들 중에는 군복무를 할 만한 장정들이 많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들을 활용하자고 한 것이었다. 먼저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한 후에 그들의 일부를 군사로 활용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류형은 목포 고하도와 인근 섬에 피난민을 정착시키자고 이순신에게 건의했고, 이순신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군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류형은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원균(元均)이 칠천량해전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막료가 되었다. 그는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의 방법을 이순신에게 건의하여 수천 명의 군사를 모집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용병(用兵)에 능하고, 통제영(統制營)의 기계설비 등 군

사시설의 확립에도 주력하였다.

류형은 1598년 조명연합수군이 참전한 예교성 전투에서는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이순신의 근경을 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량 해전중에 적탄에 6발을 맞아 부상을 입고도,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하여 전투를 지휘한 사실이 왕에게 알려져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에 발탁되었다. 류형은 이순신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1600(선조 33년)년에 경상우수사로 임명되었으며, 1602년(선조 35년) 제 4대 이시연에 이어 제5대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다시 충청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609년(광해군 1년) 함경도병마절도사로 회령부사를 겸하였다. 이어서 경상도병마절도사·평안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황해도병마절도사로 재임 중에 사망하였다.

III. 군량미 마련을 위한 해로통행첩 시행

류형의 건의로 군사의 수는 늘어났으나 늘어난 군사를 먹일 군량미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 때 이순신의 막하에 있던 이의온이라는 인물이 해로통행첩을 제안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금도에 정착한 후 해로통행첩을 시행하여 군량미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징비록』에 기록되어 있는 해로통행첩 시행 관련내용이다.

“이 때 이순신에게는 이미 군사 8,000여 명이 있어서 고금도에 나아가 주둔하였는데, 식량이 궁핍할 것을 근심하여 해로통행첩을 만들고 명령하기를 “3도(경상, 전라, 충청)의 연해를 통행하는 공사(公私) 선박으로 통행첩이 없는 것은 간첩으로 인정하고 통행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난을 피하여 배를 탄 사람들은 다 와서 통행첩을 받았다. 이순신의 배의 크고 작은 차이에 따라서 쌀을 바치고 통행첩을 받게 하였는데,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으로 정하였다. 이 때 피란하는 사람들은 재물과 곡식을 다 싣고 바다로 들어오는 까닭으로 쌀 바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며 통행을 금하는 일이 없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10여 일 동안에 군량 1만여 섬을 얻었다.”[1]

해로통행첩 제도의 시행은 이순신의 통제영 수군 입장에서 백성과 왜군 세력을 구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고, 농민, 어민 등 피난민들의 입장에서는 수군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이었다. 피

난민들의 입장에서 피난을 다니면서 배에 싣고 다니는 곡식 중의 일부를 통제영에 주면 되는 것이었고, 수군이 지키는 안전한 곳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어 누구나 환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해로통행첩의 시행에 대하여 이민웅(2014)은 “유성룡의 『징비록』은 고금도 이진 이후부터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의 「행록」과 『선묘중흥지宣廟中興志』 등의 자료는 고하도 진영 때 부터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 고하도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해상 활동이 어려운 겨울이었으므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고금도로 옮긴 이후에 해로통행첩 발행이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2]라는 내용을 이은상(1989)이 지은 『완역 이충무공전서』 하 120~121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다음은 해로통행첩 관련 『선묘중흥지宣廟中興志』 [3]의 내용이다.

“이순신이 보화도(고하도)에 주둔하게 되었을 때 군사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군량 부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은 바닷길을 다닐 수 있는 통행첩(통행허가증)을 만든 다음 '이 통행첩이 없는 배는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선포했다. 피란선들이 모두 와서 통행첩을 받았다. 이순신은 배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쌀을 받은 다음 통행첩을 주었다. 그결과 불과 열흘 사이에 쌀 1만여 섬이 생겼다.”

위와 같은 해로통행첩의 시행은 이의온이라는 인물의 의견제시에서 나왔다. 앞서 전술된 군사모집을 위해 류형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 처럼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 지휘고하와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해결책을 토론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의온은 16세에 지나지 않았다. 1598년 이후에는 이순신 휘하에 들어 활동했다. 이의온이 통제사의 참모로 일하게 된 것은 1597년 10월 11일 이순신이 경주부윤 박의장 등 주요 지방 수령들에게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과였다.

다음은 『이충무공전서』 「동의록」의 이의온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유년에 이통제사의 막하로 나아갔다. 이충무공은 평소에 운주당에 거처하고 있었으며, 매일 밤이 깊어 북소리가 그치면

공은 장막 안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가서는 군무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의온은 비록 아는 것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다가 드디어 둔전에 관한 계책을 건의하였다. 이충무공이 기뻐하면서 탁식하기를 “어찌 그대가 알고 보는 것이 같이도 심원한가, 진실로 내 마음에 꼭 맞는다.”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군대는 해마다 줄어들고 군량도 부족하였으므로 의온이 가산을 기울여 군량을 보조하였으며, 고금도에서는 해로의 통행증을 만들어 바다를 지나는 피란선들은 쌀을 납부하고 통행증을 받아가도록 영달하여 장부가 여러 권으로 쌓여 그 계획이 적중하였다.”[4]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의온은 해로통행첩의 시행만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한산도 통제영시절처럼 고금도에서도 둔전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는 것과 자신도 군량을 마련하여 고금도 통제의 군량미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기록에서도 이의온이 제안한 해로통행첩은 『징비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금도에서 시행한 것으로 적고 있어 『행록』과 『선묘중흥지』의 기록과 대비된다.

IV. 고하도에서의 수군재건

한편, 이순신은 목포 보화도(고하도)에서 1597년(선조 30년) 10월 29일부터 108일을 머물렀는데 서해안의 여러 섬과 포구를 떠돌다가 고하도로 와서 비로소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수군을 고하도에 정착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점은 다음의 고하도 「이충무공 유허비」의 기록에서 풀린다.

“옛날 선조 정유년(1597)에 통제사 이충무공이 병란을 맞이하여 병사들과 함께 하였다. 전제영 계속되는 가운데 군량미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군량미를 비축할 수 있고 전선을 정비할 만한 곳을 찾던 중 얻은 곳이 나주 고하도이다. 이순신은 곳곳의 전진(戰陣)에 남은 곡식을 이곳(고하도)에 쌓도록 한 다음 군사를 모집하여 둔(屯)에 들게 하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이 섬(고하도)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른쪽으로는 영남에 연하고, 왼쪽으로는 서울로 연결된다. 가깝게는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 승리를 기약함이요, 멀리는 행재소(行在所)에 곡식을 제공하는데 궁색하지 않음이라.[5]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하도가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해로교

통이 편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과 선조가 있는 행재소에 식량과 곡식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하도는 서남해 도서지역의 해산물과 나주 등 내륙지역의 농산물을 교환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런 까닭에 이순신은 고하도에 진영(鎭營)을 설치하여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5]

V. 고금도통제영에서의 수군재건

이순신과 수군이 고하도에 머물기 하였으나 그 곳에서 머문 108일은 대부분의 시간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수도 할 수 없었고, 선박들의 해상활동도 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들의 해상활동이 뜸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해로통행첩의 발행도 저조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순신은 1598년(선조 31년) 2월 17일 추위가 물러나는 봄이 되자 남해의 완도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겨 보다 적극적으로 남해안 제해권 장악을 시도했다. 다음은 『선조실록』 1598년(선조 31년) 3월 18일의 고금도 관련 기록이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서장에,

“소서행장(小西行長)은 예교(曳橋)에 주둔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는 평수가(平秀可)가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같은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舟師)는 멀리 나주(羅州) 경내의 보화도(寶花島)에 있으므로 낙안(樂安)과 흥양(興陽) 등의 바다에 출입하는 왜적이 마음 놓고 마구 돌아다녀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니 이는 바로 흉적들이 소란을 일으킬 때이므로 2월 16일에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보화도에서 바다로 나아가 17일에 강진(康津) 경내의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겼습니다. 고금도 역시 호남(湖南) 좌우도의 내외양(內外洋)을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로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고 후망(侯望)이 잇대어져 있어 형세가 한산도(閑山島)보다 배나 좋습니다. 남쪽에는 지도(智島)가 있고 동쪽에는 조약도(助藥島)가 있으며, 농장(農場)도 역시 많고 한잡인(閑雜人)도 거의 1천 5백여 호나 되기에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흥양과 광양(光陽)은 계사년부터 둔전(屯田)을 하였던 곳으로 군민(軍民)을 초집(招集)하여 경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6]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긴 이순신이 적 수군의 동태 및 아군의 준비상황을 아뢰는 내용에서 고금도와 주변 지역을 설명하고 그 곳에서 둔

전을 경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술된 고금도 통제영에서의 이의온의 둔전시행의 건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순신이 고금도 통제영 주변에 둔전을 시행하게 된 것에는 이의온의 둔전 시행 건의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5]는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왜적이 낙안과 흥양, 벌교 일대로 난입하였다’는 점이고, 반면 ‘우리 수군은 목포 앞 바다 보화도(고하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1598년에 왜적이 흥양과 낙안 일대에 출몰하는데, 우리 수군은 내해에 입지한 목포 인근 연안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순신이 수군을 이끌고 목포 고하도에서 강진 고금도로 전진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고금도가 수군이 정착하기 위한 자연적인 입지조건도 좋으나 낙안, 흥양 등 왜군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고하도보다는 고금도가 왜군을 막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순신이 고금도에 통제영을 옮겨 정착한 이후 떠돌아다니던 피난민이 약 1,500호나 거주할 정도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졌고, 같은 해(1598년) 7월부터 진린(陳麟)이 이끄는 명나라 수군이 완도 고금도 진영에 도착했을 때, 고금도에는 조선 수군을 포함해 약 27,000여 명이 주둔했다.

다음의 표 1은 고금도에 명나라와 조선의 수군이 약 27,000여 명이나 주둔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1598년(선조 31년) 동로, 중로, 서로, 수로, 즉 사로병진작전(四路竝進作戰)시 조명연합군의 병력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사로병진작전 시 조명연합군의 병력현황
Table 1. Force Status of The Joseon-Ming Combined Forces
The moment Sarobyungjinjakjun

구분	명군	조선군 (1598년 현재)	병력합계
동로군	24,000명	5,514명	29,514명
중로군	26,800명	2,215명	29,015명
서로군	21,900명	5,928명	27,828명
수로군	19,400명	7,328명	26,728명
합계	92,100명	20,985명	113,085명

출처 : [4]

그러나 이순신의 통제영에는 둔전경영과 해로통행첩 등의 시행으로 인해 군량미 문제를 겪지 않을 정도로

곡식이 충분했다. 또한, 명나라 수군을 잘 대접하여 명나라 수군들과 도둑 진린이 감동할 정도였다고 한다.[7] 만일 이순신이나 참모들이 피난민을 거주장스러운 집 단으로 생각했다면, 이순신의 수군은 군사의 부족은 물론 군량미의 부족으로 인해 자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순신은 류형, 이의온 등의 참모 및 군사, 그리고 백성들과 의견교환을 하는 유연함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군사, 농민, 어민 등의 피난민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군사모집과 해로통행첩 제도를 실시하여 군사와 군량미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실시한 군사모집이나 해로통행첩 제도는 명량해전 승리 이후 목포 고하도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완도 고금도로 옮겨 와서 더욱 확대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왜군들의 서진을 저지했고, 해상 주도권을 다시 확대해 나간 것이다.

VI. 해로통행첩 · 낙인세 · 어염세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이 장군의 통제영에서 시행한 해로통행첩은 바닷길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통제영이 자체적으로 징수한 특별조세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은 “해로통행첩의 발행은 국가의 징세권과 사법권을 수군이 일부 침해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방편이었지만 후일 고금도로 진영을 옮긴 뒤에도 해로통행첩을 계속 발행한다. 해로통행첩은 이순신이 보화도를 중심으로 삼아 해변일대에 군정체제를 재가동했음을 상징한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해로통행첩이 바닷길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통제영에서 자체 징수한 특별조세 성격이었다는 것과 통행첩이 없는 배는 간첩선으로 인정하고 통행할 수 없게 한다는 사법권을 통제영이 자체 시행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제영에서 자체 징수한 특별조세인 해로통행첩제도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통영에 있던 수군 통제영의 자치적인 수입이었던 어염세(魚鹽稅)와 낙인세(烙印稅)라는 세금이 있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어염세는 어로작업으로 인한 물고기의 판매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로작업과 소금생산을 하는 설비(設備)와 권리(權利)에 대하여 부과한 조세였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염세는 조선시대의 잡세 중에 어세와 염세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어염세는 통제영에서 자체 징수한 어염세에 관한 내용이다.

[9][10]은 “균역법 실시 직전에도 통제영은 많은 수입을 어염세에 의지하고 있었던 같다. 균역법이 실시되자 조선정부는 각 도에 균세사를 파견하여 어염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제영 어염세는 절가(折價)하면 풍년에는 약 40,000냥, 흉년에는 약 7,000~8,000냥 정도로 파악되었다. 통제사 이경무(李敬懋)도 ‘수입이 40,000~50,000냥이 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두 언급을 통해 통제영의 어염세 수입이 약 7,000~50,000냥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11]은 “인조 3년(1625년) 어염의 생산량은 10일 만에 어염 1천석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하였으며, “어염은 생산량 자체보다도 판매를 통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품목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통제영은 세금으로 걷은 어염을 소금이 부족한 낙동강 상류 지역에 팔고 3~4배에 이상의 차익을 남겨 재원에 보충하였다”라고 하였다.

“낙인세는 통제영 앞바다를 지나가는 선박을 검열하고 세금을 걷는 일종의 통행세였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낙인세라 지칭하였다.”[11] 낙인세 같은 경우에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이었으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통제영에서 시행한 해로통행첩의 성격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시상황이 아닌 당시의 낙인세는 그 목적과 배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하였다. 상업행위인 무관(貿販)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배는 큰 배 15필, 작은 배 8~9필 정도를 수세하였으며, 어업(漁業)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배는 1필을 수세했다고 한다. 상업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이 어업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선박보다 큰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여 이렇게 수세했던 것으로 보인다.[11] 임진왜란이라는 전시상황의 해로통행첩 제도에서 큰 배는 곡식 3석, 중간 배는 2석, 작은 배는 1석의 곡식을 내고 통행첩을 발행하고, 배의 통행과 어업을 허용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어염세와 낙인세는 1750년(영조 26년)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염세가 균역청으로 귀속되고 낙인세는 폐지되게 된다.

한편, 균역법의 실시로 수군에 대한 감필(減戍), 감혁(減革), 낙인세의 폐지 및 어염세의 균역청 이속으로 인해 통제영의 재정은 악화되었다. 특히, 통제영 재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것은 감필과 어염세의 균역청 이속이었다. 이 중 감필보다는 어염세 이속이 통제영에 준 타격은 훨씬 광범위하고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11]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악화된 통제영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건의와 조치가 있었는데 정조 1년(1777년) 도승지 홍국영이 균역청과 통제영 사이의 이해관계를 타결하기 위해 어장을 균역청 소속과 통제영 소속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경상수도 연해 어전이 균역청 소속이 되고 통제영 소속 등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어세 징수를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균역청에서 발급한 것을 장표, 통제영에서 발급한 것을 지첩이라고 불렀다. 이 장표와 지첩은 일종의 어채(魚採)의 면허였다. 그 해의 어세를 납부해야 다음 해의 장표나 지첩 발급받아 어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균역법 소속 어전에 부과하는 세금을 원세(元稅), 통제영 소속 어전에 부과하는 세금을 여세(餘稅)라고 하면서 구분하였다.[11][12] 다음의 표 2는 해로통행첩과 낙인세, 어염세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해로통행첩, 낙인세, 어염세의 비교
Table 2. Compare of Seaway Traffic Certificate, Nakinsae, Uyeomsae

구분	해로통행첩	낙인세	어염세
징수액	큰 배: 곡식3석	큰 상선: 세포(細布)15필	약 7,000~50,000냥(년)
	중간 배: 곡식 2석	작은 상선: 세포(細布) 8~9필	
	작은 배: 곡식1석	어선: 세포(細布)1필	
성격	통행 및 어업보장 곡식 징수 군량미 확보	통행 낙인 세포(細布)징수 재정 확보	어염권에 부과하여 재정확보
통행첩과 낙인세의 공통점	통제영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한 해로통행세		
세 가지의 공통점	통제영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한 특별조세		
시행시기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 이후	

VII. 전선 및 병기제작

고하도를 거쳐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긴 이후 군사모

집과 군량미의 확보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판옥선)의 건조 및 각종 병기의 제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다음은 이러한 의문점과 관련한 『징비록』에서의 기록이다.

“또한 이순신과 수군들은 자신들을 따라온 피난민들을 완도 고금도와 인근 섬에 정착시켰다. 섬이 안정될수록 피난민들은 안전을 위해 더욱 몰려들었다. 이순신은 그들 중에서 민정(民丁)을 모집하고, 구리와 쇠를 수송하여 대포를 주조하며, 나무를 베어 배(전선)를 제조하였다.”[13]

위의 『징비록』에서의 기록과 관련하여 전선 건조와 병기 제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홍양현감 최희량이었다. 최희량(1560년~1651년)은 1594년 갑오년(1594년)에 무과에 급제한 후 충청수사 이계정의 휘하에서 군관으로 활약한 후 선전관을 거쳐 정유년(1597년)에 홍양현감에 제수되어 이순신 휘하에서 활동하였다.[4] 다음은 이와 같이 전선 등을 제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 홍양현감 최희량에 대한 기록이다.

“한산에서 새로이 전함이 부서져 모두 수몰되었는데, 희량은 무술년 봄에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을 이끌고 몸소 재목을 끌어서 전선을 조성하였으며, 활과 화살, 창과 방패가 정비된 것이 다른 고을이 아직 거름이 없었던 것에 비해 단연 뛰어나서 당시 통제사 이순신이 특별히 포계를 올린 것입니다.”[4]

다음의 표 3은 고하도 및 고금도에서 최희량 등의 역할로 추가로 제조된 전선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고하도·고금도에서의 전력증강 현황(판옥선)
Table 3. military power strength in Gohado · Gogumdo

구분	명량해전 직후 (1597.9.17~10.28)	고하도 주둔기 (10.29~1598.2.16)	고금도 주둔기 (2.17~7.15)
병력확보	1,000여명	2,000여 명	7,300여 명
전선건조 (판옥선)	13척 (기존 전선 유지)	53척 (40척 추가 건조)	60~70척 (10여척 추가 건조)

출처 : [4]

다음의 표 4는 이순신의 수군재건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언급된 인물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4. 류형·이의온·최희량의 활약
 Table 4. activities of Yu-Hyeng, Lee Eui-On, Choi Hee-Ryang

구분	류형 (1566~1615)	이의온 (1577~1636)	최희량 (1560~1651)
주요 활약시기	정유재란기	정유재란기	정유재란기
주요 활약	수군 모집방법 제안 노량해전참전, 제5대 삼도수군통제사	고금도에서의 둔전실시 제안, 해로통행첩 시행 제안	진선 및 병기제작

VIII. 정사준·정사횡·정사정 형제의 공헌

다음의 내용은 이순신이 1592년(선조 25년) 12월 25일 조정에 올린 장계의 기록이다.

“승정원에서 열여보십시오. 지난 9월 순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봉사로 기복한 정사준은 같은 고을의 의로운 선비이며 교생인 정 빈 등과 약속하고 각각 의연곡을 모아 한 배에 싣고 행재소로 올라간다 하므로 본영과 수군 관할의 각 고을인 순천·광양·낙안·홍양등의 고을 수령들이 따로 봉하여 진상하는 물품 등을 각각 물목을 기록하여 올려 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실정을 아뢰는 장계를 위의 정사준에게 맡기어 올려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서해의 물길이 풍세가 불순할 뿐 아니라 정사준이 중로에서 추운기운에 몸을 상하여 병세가 위독하여 올라가지를 못하고 되돌아 왔으므로 우선 그 동생이며 신의 군관인 정 사횡에게 그 의연곡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신이 따로 봉하여 진상하는 장편전 등 잠물과 탄신 일·동지 및 설날에 소요되는 방물의 진상도 함께 위의 정사횡과 본영의 진무 김양간에게 일시에 맡기어 의연곡을 실은 배에 같이 실어 올려 보내었습니다.

순천 부사 권준이 따로 봉하여 진상하는 것도 또한 물목을 만들어 한 배에 같이 실어 보냈습니다.

광양·홍양·낙안 등의 고을은 전일의 장계에서 아뢰 바와 같이 각각 제 고을에서 사람을 뽑아서 관선에 실어 보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을 올려 주기 바랍니다.”[14]

다음의 내용은 1593년(선조 26년) 7월 15일에 본영을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긴 후 8월 10일 조정에 올린 장계의 기록이다.

“삼가 올려 보내는 일로 아뢰입니다. 신이 여러번 큰 싸움을 겪으면서 왜인의 조총을 얻은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묘리를 실험한 즉, 총신이 길기 때문에 그 총구멍이 깊숙하고, 깊숙하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맹렬하여 맞기만 하면 반드시 부셔지는데, 우리나라의 「승자」나 「쌍혈」 등의 총통은 총신이 짧고 총구멍이 얇아서 그 맹렬한 힘이 왜의 총통만 같지 못하며 그 소리도 웅장하지 못하므로 조총을 언제나 만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군관 훈련 주부 정사준이 묘법을 생각해 내어 대장장이 낙안 수군이 필종·순천 사삿집종·안성이 피란하여 본영에 와서 사는 김해 절종·동지·거제 절종 언복 등을 데리고 정철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총신도 잘 되었고 총알이 나가는 힘이 조총과 꼭 같습니다. 총구멍에 불을 붙이는 기구가 조금 다른 것 같으나 몇일 안으로 다 마쳐질 것입니다. 또 일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수군 소속의 각 관포에서 우선 같은 모양으로 만들게 하였으며, 한 자루는 전 순찰사 권율에게 보내어 각 고을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였거니와 지금 당장에 적을 막아내는 병기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철로 만든 조총 5자루를 봉하여 올려 보내오니 조정에서도 각 도와 각 고을에 명령하여 모두 만들도록 하되, 만드는데 감독하면서 제조한 군관 정사준과 위의 대장장이 이필종 등에게 각별히 상을 내리셔서 감격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고 모두들 서로 다투어 만들어 내게 함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삼가 갖추어 아뢰옵니다.”[15]

위의 장계 내용은 여수에서 한산도로 본영을 옮긴 이순신이 전투에서 노획한 조총을 참고하여 정철조총을 제작하여 중앙조정에 보내어 다른 지역에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사준과 이필종에게 상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사횡(鄭思竑)은 이순신이 1592년(선조 25년) 12월 25일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의 군관시절 형 정사준의 병으로 대신 의연곡을 배에 싣고 행재소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정유재란 시기에는 이순신이 통제사로 복귀되자 이순신의 밑에서 의병을 일으

키고 군량을 모아서 노량해전에 까지 크게 활약하였다. 그 동생이 정사정(鄭思靖) 역시 집안 하인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4]

표 5. 정사준·정사횡·정사정 형제의 활약
Table 5. activities of Jung Sa-Joon, Jung Sa-haeng, Jung Sa-Jung brothers

구분	정사준	정사횡	정사정
주요 활약시기	전라좌수영 시절(1592년 ~1594년)	고금도 통제영시절 (1597년~정유재란기)	
주요 활약	의연곡 모집, 정철조총 제작	의연곡 운반(전라좌수영 시절), 의병모집, 군량미 모집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약

IX. 결론

이순신이 정유재란기 삼도수군통제사로 재등용된 후 경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실시한 둔전경영 및 해로통행첩 제도의 시행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군량미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숙명의 과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순신은 조선의 수군의 군량미 확보 외에도 명나라 수군에게까지 군량미를 지원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순신의 경세가로서의 경영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군량미를 해로통행첩의 시행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바닷길을 통행하는 선박에게 중앙조정이나 지방관청이 아닌 통제영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조세를 과세 및 징수하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References

[1] Tae Hun Kim, "Two Face of Yi Soon-Shin", Chang Hae, (2004).
 [2] Min Woong Lee, "Sea War Recor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Chungarammedia, (2014).
 [3] "Sunmyojoonghungji", Institute of for The Translation Korean Classics; 『이충무공전서』 권지13, 부록.
 [4] Jang Myung Jae, "Serve in a war as a commoner of Yi Soon-Shin", Happy Tree, (2011).
 [5] Gyung Ok Kim, "16~17c installation of Gogumdo vicinity Seaway Navycamp", BookCulture 33, (2009), pp.171-201.

[6]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년) 3월 18일
 [7] Bun Yi, "YiChoongmugong Compendium", 9, Hangrok; 『이충무공전서』 권지9, 행록, 무술년 (1598년) 7월조.
 [8] Han Sik Jang, "Yi Soon-Shin Water Nation Project", Happy Tree, (2009).
 [9] Gi Joong Song, "Kyunyekbub Implementation and Managemnet of Navy Pay",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218, (2013), pp.173-208.
 [10]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승정원일기』 1067책, 영조 27년 4월 19일.
 [11] Gi Joong So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Management of Change Navy Pay". Doctorate Thesis ChungNam University, (2015).
 [12] "Ilsungrok", Institute of for The Translation Korean Classics; 『일성록』 정조 17년 5월 27일.
 [13] Sung Ryong Yu · Jae HO Lee(translation), "Jingvirok", Morning of History, (2007).
 [14] Sung DO JO, "ImJinjangcho," Yeongyungmunhwasa, (1997); 『임진장초』 임진년(1592년) 12월 25일.
 [15] Sung DO JO, "ImJinjangcho," Yeongyungmunhwasa, (1997); 『임진장초』 계사년(1593년) 8월 10일.